

쓰고난 뒤 끝마무리는 이렇게

철저한 정리정돈으로 돌발사고 막아야

〈홍보부〉

병해충 방제를 위한 살포작업이 끝나면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사용한 용기나 살포장비는 깨끗이 씻어두어야 한다. 작업후에 살포장비를 닦지않고 그대로 두면 장비가 상하게 됨은 물론 다음 약제살포시 약해발생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때 특히 2,4-D와 같은 페녹시계 제초제를 사용한 살포장비는 암모니아수 또는 숯가루 용액 등으로 씻어내면 좋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방제장비를 씻어낸 물이 하천, 우물등 수원지로 흘러들어가게 해서는 안된다.

살포작업이 끝나고 주변정리를 끝낸 후에는 손, 발, 얼굴등과 온몸을 깨끗이 씻은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살포작업중에는 물론이지만 작업이 끝난 후에도 술을 마시는 일은 절대 삼가해야 한다.

한편 살포작업시 입었던 방제복 등 보호장비는 다른 사람의 옷과 분리하여 깨끗이 빨아서 손질한 후 보관해야 다음 살포작업에 사용하기 편하다. 너무 낡거나 세탁하기 곤란한 보호장비는 불태워 버리거나 하천, 우물 등과 멀리 떨어진 곳에 땅을 파고 묻도록 한다.

또 한가지 중요한 일은 살포작업 때 마다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다. 배번 작업일지를 적어 두면 다음 작업때 많은 참고가 되기 때문이다. 작업 일지에는 △살포일시 △살포장비의 종류 △사용농약 및 제형 △희석비율 및 희석방법 △단위면적당 살포량과 전체 살포면적

△대상 병해충 △살포작업때의 날씨 △살포작업자의 성명과 나이 등을 기록한다.

살포작업이 끝나면 살포지역에 농약 살포지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어린이등 외부인과 가족의 출입을 막도록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취급자외는 손댈 수 없게

농약의 경구중독, 즉 농약을 마심으로 일어나는 중독사고 원인의 대부분이 잘못 보관된 농약을 술에 취한 사람이나 어린이가 마시거나 자살목적으로 이용하여 일어난다. 따라서 쓰고남은 농약을 잘 보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사고는 항상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므로 예방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농약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손댈 수 없도록 보관해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들에 유의하여 보관해야 한다.

- ① 농약전용 보관상자를 만들거나 현 캐비닛 등에 자물쇠 장치를 하여 어린이나 노인, 술에 취한 사람이 농약을 함부로 취급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 ② 농약보관상자는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중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자물쇠를 채워 보관해야 한다.
- ③ 농약은 다른 병에 옮겨지 말고 본래의 농약용기에 라벨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보관한다. 만약 라벨이 훼손되었다면 최소한 농약명, 상표

명 또는 품목명이라도 명기하여 보관토록 한다.

④ 제초제(특히 비선택성 제초제)와 고독성 농약은 일반농약과 구분하여 보관함으로써 오용피해를 막는다.

⑤ 보관중인 농약은 용기의 부식, 약액의 누출, 마개의 풀림 등이 없는지 가끔 살펴보아야 한다. 만약 용기에 이상이 발견되면 바로 견고한 다른 용기에 옮겨담고 본래의 라벨을 즉시 붙이도록 한다.

빈병처리로 환경오염 막자

또 한가지 남은 일은 쓰고난 농약빈병을 잘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막는 일이다. 농약을 사용하고 난뒤 빈 농약병을 논·밭두렁이나 수로에 마구버리면 병에 남아있는 농약에 의하여 물이나 토양이 오염되고 깨진 농약병에 의해 농작업에 지장을 받거나 인체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농촌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1987년부터 농약빈병을 한국 자원재생공사에서 폐비닐과 함께 현금을 지불하면서 수거하고 있다.

수집가격은 종전까지는 유리병이 kg당 90원(300ml병 3개 상당), PET병은 kg당 900원(500ml병 30개 상당)이었으나 농민들의 수집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금년부터는 kg당 유리병은 120원, PET병은 1,200원으로 인상됐다.

병해충 방제작업 못지않게 사용후의 적절한 뒷처리 역시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농약정보**